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Republic

2019년 12월 31일 | 선임연구원 조영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87천 km <sup>2</sup> 	<b>인구</b> 1,005.9만 명 (2019 <sup>e</sup> ) 	<b>정치체제</b> 대통령중심제 	<b>대외정책</b> 실리외교 
<b>GDP</b> 471.7억 달러 (2019 <sup>e</sup> ) 	<b>1인당GDP</b> 4,689달러 (2019 <sup>e</sup> ) 	<b>통화단위</b> Azerbaijani Manat(AZN) 	<b>환율(\$기준)</b> 1.70 (2019 <sup>e</sup> ) 

- 아제르바이잔은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2003년 취임한 알리에프 대통령이 2018년 4선에 성공하여 2025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됨.
-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 지역에 대규모 유전,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방의 에너지 기업들이 에너지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터키를 통해 유럽으로 연결되는 송유관, 가스관을 건설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음.
- 1990년대 초에 발생한 아르메니아와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영토 분쟁이 현재까지도 지속되어 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구소련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민족·종교적으로 유사한 터키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친서방 정책을 추진하며 EU와 에너지, 운송 등의 부문에서 협력관계를 맺어 왔으며, 2014년 이후에는 구소련 해체 이후 악화되었던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2. 2. 23 수교 (북한과는 1992. 1. 30)

**주요협정** 항공협정('06), 외교관상호사증면제협정, 투자증진및보호협정, 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이상 '08), 경제협력에관한협정('12),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 운전면허증상호인정및교환협정(이상 '13)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주요품목
수 출	118,289	53,310	68,200	차량부품, 건축용품, TV
수 입	337	885	1,630	금속광물, 알루미늄

해외직접투자현황(2019.6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22건, 5,348천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sup>f</sup>
경제성장률	1.1	-3.1	0.2	1.0	2.7
소비자물가상승률	4.1	12.4	12.8	2.3	2.8
재정수지/GDP	-4.8	-1.1	-1.4	5.6	5.3

자료: IMF, EU

### 샤 데니즈 가스전에서의 천연가스 생산량 증대로 2017년 이후 플러스 경제성장 지속

- 기존 유전에서 원유 생산량 감소로 2016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후, 2017년 0.2%로 미약하나마 플러스 경제성장을 회복하여 2018년 1.0%, 2019년 2.7%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샤 데니즈(Shah Deniz)-2 가스전에서의 생산량 증대를 통한 천연가스 수출 증대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2019년 1~11월 샤 데니즈-1-2 가스전에서의 천연가스 수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비해 25.4% 증가한 90.4억 m<sup>3</sup>를 기록하였음. 아울러 비석유 부문도 정부의 투자 확대를 통해 2018년 7.9% 성장하였음.
- 한편, 2020~24년 중 아제르바이잔의 연평균 실질임금 증가율은 3.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국내소비 증가도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환율 안정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에 힘입어 2019년 2.8% 기록 추정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마나트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물가 급등의 여파로 2016~17년 연속 12%대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 상반기 이후의 환율 안정에 따라 2018년 2.3%로 안정된 데 이어 2019년에도 2.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5~17년 마나트화의 미 달러화 대비 환율 상승으로 수입품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결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6년 12.4%, 2017년 12.8%로 대폭 상승하였음.
-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에 따라 중앙은행은 2018년 기준금리를 연초의 13%에서 9.75%까지 인하하였으며, 2019년에도 8차례에 걸쳐 7.5%까지 인하하였음.

### 에너지자원 수출액 증가에 따른 조세수입 증가로 재정수지는 흑자 기록 추정

- 주요 수출품목인 천연가스, 원유 등 에너지자원의 수출액 증가로 에너지 기업으로부터의 조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는 2018년 GDP 대비 5.6%의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2019년에도 GDP 대비 5.3%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sup>f</sup>
경상수지	-223	-1,363	1,685	6,051	3,879
경상수지/GDP	-0.4	-3.6	4.1	12.9	8.2
상품수지	5,813	4,206	6,115	9,841	7,076
상품수출	15,586	13,211	15,152	20,794	18,459
상품수입	9,774	9,004	9,037	10,952	11,383
외환보유액	6,078	5,630	6,462	6,452	6,999
총외채	12,008	17,068	20,839	20,884	20,949
총외채잔액/GDP	23.6	45.1	50.4	44.5	44.4
D.S.R.	8.5	8.6	10.2	9.8	10.5

자료: IMF, EIU

### 석유 및 가스 수출을 통한 경상수지 흑자 지속

- 2019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8.2%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상품수입액 규모가 일정한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에너지 국제가격의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수출액은 전년대비 2017년 14.9%, 2018년 37.2%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GDP 대비 2017년 4.1%, 2018년 12.9%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 2019년에도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자원의 수출을 통해 GDP 대비 8.2%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됨.

## 외채상환능력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과 D.S.R.은 안정적 수준 유지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GDP 규모의 증가에 따라 2017년 이후 하락하였으며, 2019년에는 2018년(44.5%)과 거의 동일한 44.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아울러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8년 9.8%에 이어 2019년에도 10.5%의 안정적인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 2017년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규제금융으로 인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54.1%로 상승한 이후, 점진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8년 48.4%, 2019년 46.0%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

## 구조적취약성

### 대외환경 변동에 취약한 에너지자원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

- Fitch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은 아제르바이잔 총수출의 91%, 재정의 63%, GDP의 42%에 이르는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국제가격의 변동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EIU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아제르바이잔의 상품수출 구성은 에너지자원 및 석유화학제품 92.1%, 식료품 3.6%, 금속 1.3% 등임.

### 높은 부실여신비율로 금융 부문의 취약성 지속

- 아제르바이잔의 금융 부문은 은행들의 높은 부실여신비율로 인한 취약성을 안고 있음.
- 정부는 2017년 말 아제르바이잔 최대 은행인 IBA(International Bank of Azerbaijan)의 채무재조정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는 정부부채 증가에 영향을 주었음.
- 2018년 말 기준 아제르바이잔 은행권의 NPL(무수익여신) 비율은 전체 대출액의 17%에 이르며, 이러한 금융권의 부실은 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성장잠재력

### 풍부한 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잠재력

- BP 자료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은 2018년 말 기준 원유 70억 배럴(전 세계 확인매장량의 0.4%)과 천연가스 2.1조 m<sup>3</sup>(전 세계 확인매장량의 1.1%)를 보유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원유생산량은 연 3,920만 톤(일일 기준 78.3만 배럴)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0.9%를 점유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생산량은 연 188억 m<sup>3</sup>로 전 세계 생산량의 0.5%를 점유함.

### 유럽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에너지 운송루트 구축으로 수출 안정화

- 남부가스회랑(TANAP 가스관과 TAR 가스관)을 통한 유럽으로의 천연가스 수출망이 구축됨.
- 카스피해 샤 데니즈-2 가스전에서 터키를 통과하여 연결되는 TANAP(Trans-Anatolian Pipeline) 가스관의 완공식이 2019년 11월 터키와 그리스 국경 근처의 입살라(Ipsala)에서 거행되었으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참석하였음.
- 한편, TANAP 가스관과 그리스, 알바니아를 거쳐 남부 이탈리아 지역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되는 TAR(Trans Adriatic Pipeline) 가스관의 연결은 2020년 초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됨.
- \* TANAP 가스관의 지분 구성은 아제르바이잔 SOCAR 59%, 터키 BOTAS 30%, BP 12% 등이며, TAR 가스관의 지분 구성은 BP 20%, SOCAR 20%, 이탈리아 Snam S.p.A. 20%, 벨기에 Fluxys 19%, 스페인 Enagás 16%, 스위스 Axpo 5% 등임.
- 아제르바이잔은 2020년부터 이 가스관을 통해 터키로 연 60억 m<sup>3</sup>, 유럽으로 연 100억 m<sup>3</sup>의 가스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성장잠재력

<그림 1> TANAP, TAR 가스관



자료: <http://www.newslettereuropean.eu>

## 정책성과

### 에너지 수출 소득으로 국부펀드를 조성하여 인프라 건설과 사회복지에 투자

- 에너지 수출 소득으로 조성된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 SOFAZ(Sovereign Oil Fund of Azerbaijan)의 규모는 2019년 9월 말 기준 연초(385억 달러) 대비 10.4% 증가한 425억 달러로, 당해 연도 GDP의 90%에 달하고 있음.
- 국부펀드 규모의 증대는 석유·천연가스 수출 수입(收入) 및 투자운용 수익의 증가에 따른 것임. 2018년 말 기준 SOFAZ의 자산구성은 장·단기금융채권 76.5%, 주식 12.8%, 부동산 5.3%, 금 5.4%임.
- 정부는 국부펀드 자금을 예산 지원과 철도 및 관개시설 등 인프라 건설, 나고르노-카라바흐 이주민 정착 등의 사회복지 정책 추진에 주로 사용하고 있음.

###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국제교역 및 운송 허브로 발전 추진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협력으로 2019~23년 교역 및 운송망 발전정책을 추진, 중앙아시아와 터키 및 유럽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남부의 물류 중심지로 발전하고자 함.
- 한편, 2019년 12월에는 아제르바이잔 최초로 자국산 석유 탱크선박과 페리선박을 건조하였는데, 향후 이 선박들은 카스피해역에서 운항될 계획임.

## 정치동향

### 의회 자체 해산 및 내년 2월 조기총선 실시

- 알리에프 대통령의 국가개혁 추진을 위한 새로운 의회 구성 필요성 제기에 따라 아제르바이잔 의회는 여당인 '신아제르바이잔당'의 주도로 11월 29일 투표를 통해 해산을 결의하였음.
- 이에 따라 당초 2020년 11월로 예정된 총선은 2020년 2월 초에 앞당겨 실시될 예정이며, 여당은 젊고 개혁적인 인물들을 다수 영입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조기 총선 실시에 대해 야권 세력인 '민주세력국가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총선이 추진된다고 주장하며 선거 불참 의사를 밝힘.

## 사회동향

### 인권 및 민주주의 부문에 대한 국내외의 부정적 평가 지속

- 아제르바이잔 내 인권단체들에 의하면 최근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주요 인권단체인 Union for Freedom for Political Prisoners of Azerbaijan(UFPPA)은 2019년 8월 양심수 117명의 명단을 발표하였음.
- 2019년 5월 EU 대외관계청이 발표한 2018년 세계인권 및 민주주의 연례보고서(2018 Annual Report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는 아제르바이잔에서 결사, 표현, 집회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함.

## 사회동향

## 최근 반정부 시위 발생으로 집회 참가자 다수 체포

- 2019년 10월 수도 바쿠에서 부패 척결, 민주주의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여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체포되었음.
- EU의 외교안보정책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구금자들의 석방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아제르바이잔 외교부는 EU의 성명을 반박하며 집회가 불법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주장하였음.

## 국제관계

## 터키 및 투르크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관계 강화

- 아제르바이잔은 언어 및 종교, 문화가 유사한 터키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치·경제·군사 부문에서 협력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은 투르크어권국가협력위원회(Cooperation Council of Turkic-Speaking States), 투르크어권국가 정보기관회의(Special Service Bodies of Turkic-speaking States) 등을 통해 터키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등 투르크계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터키와는 공동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2019년 6월 8~11일 아제르바이잔의 나흐치반 지역에서 5,000여 명의 병력과 200대의 전차 및 장갑차, 21대의 전투기 및 헬리콥터가 동원된 아제르바이잔-터키-조지아 3개국의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이 실시된 바 있음.
- 아제르바이잔 국영 에너지기업 SOCAR는 터키의 정유공장 건설을 비롯한 에너지 부문에 142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양국은 바쿠(아제르바이잔)-트빌리시(조지아)-카스(터키)를 연결하는 BTK 철도(2017년 10월 개통)를 통해 물류운송 부문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 러시아와 외교, 군사 등 부문에서 관계 강화 추진

-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와도 외교, 군사 등의 부문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올해 11월에는 알리에프 대통령의 부인인 알리에바 제1부통령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 우호훈장을 수여받은바 있음.
- 아제르바이잔은 최근 러시아 주도의 CIS가 개최하는 의회총회, 국가안보회의 등의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양국 정부 간에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군사기술협력위원회를 통해 군사기술 부문에서도 협력이 추진되고 있음.

##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놓고 아르메니아와의 분쟁 지속

- 1991년에 발생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싼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의 영토분쟁이 현재까지 지속됨에 따라 양국 관계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양국은 이 지역에서 군사적 대치를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 7월에도 양측 간의 교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음.



## 외채상환태도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외채는 거의 전부 중장기이며, 연체규모는 매우 미미한 수준

- 2018년 9월 말 기준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인수승인 잔액은 전년동기(약 39억 6,000만 달러) 대비 감소한 34억 6,420만 달러이며, 이중 중장기 잔액이 33억 4,070만 달러로 96.4%를 차지함.
- 현재 연체액은 중장기 30만 달러로 매우 미미한 수준임.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2019.02)	5등급(2018.01)
Moody's	Ba2 (2017.08)	Ba1 (2016.04)
Fitch	BB+(2018.02)	BB+(2017.02)

국제신용평가사들은 2017년 이후 신용등급 유지

- Fitch는 2016년 아제르바이잔의 국별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등급전망은 2018년 2월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된 바 있음.
- Moody's는 2017년 8월 이후 Ba2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은 국제유가 안정으로 경기가 회복되어 2018년 1.0%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회복하였으며, 2019년에도 샤 데니즈 가스전에서의 천연가스 생산 및 수출 증대에 힘입어 2.7%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재정수지도 2018년에 이어 2019년 GDP 대비 5%대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 2003년부터 재임 중인 알리에프 대통령이 2018년 4선에 당선되어 2025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최근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여당은 의회를 해산하고 2020년 초 조기총선을 앞두고 있음.
- TANAP 가스관 건설 및 TAR 가스관과의 연결을 통해 향후 터키와 EU로의 천연가스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러시아와도 경제협력을 지속하고 있음.
- GDP의 약 90%에 달하는 425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GDP 대비 총외채잔액과 외채상환비율(D.S.R.)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